

地球의
超異變



Pole Shift!?

— 全面 核戰爭보다도 더 처참한 破局이? —

존·화이트 著
張世元 譯

〈前月號에서 계속〉

제 2 차 세계대전과 현재의 중동동란(中東動亂)을 예언한다

가트루드를 포함하여 주위의 사람들은 이 신동한 리이딩에 매혹되어 그의 능력은 완전히 시공(時空)을 초월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이딩을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제 1 차 세계대전후, 대불황과 함께 유럽에서 나찌스와 파시즘이 대두한다면... 그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장의 서두에서 말한 오하이오주 디톤에서의 중대한 리이딩이 있었던 것이다. 디톤에는 케이시의 아담한 사무실이 있었다. 그곳에 남편과 함께 있었던 가트루드는 그날 단순히 나찌스나 파시즘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그 앞날의 인류의 운명도 물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한 기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가트루드에 캐시지는 잠든채 무엇인가에 조중당하는 듯 지겨리기 시작했다.

캐시지 「히틀러나 뭇솔러니는 그대로 주저 않을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들은 결국 미국과 소련의 공격으로 망하게 되나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을 죽게하며 유럽은 폐허화되고 세계는 뒤집혀진다...」

가트루드 「무서운 일입니다. 그 뒤집혀진다는 것은 훨씬 전에 당신이 리이딩한 과거의 극(極)의 변동과 같은 것입니까」

캐시지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때인가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번(異變)이기는 하나, 지금은 전쟁이다. 그것도 대전쟁이다.

지난 날의 대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다」

가트루드 「그것은 끝이날 일입니까」

케이시 「43년에서 44년에 걸쳐서 끝이 날 것이다. 미국은 승리하고 미국과 적이 된 나라들은 모두 망할 것이다. 무서운 파괴력에 의해…」

가트루드 「우리들에게 피해는 없을런지요」

케이시 「국내에는 없다. 그러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또는 태평양의 여력 속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슬픈 일이나 재직중에 사망하는 제 2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가트루드 「그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화로운 세계는 올 것이지요」

케이시 「아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동란은 이어질 것이다. 특히 중동(中東)에서.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를 경계해야 한다.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특히… 이러한 곳에서 인류는 그것(동란)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호주(濠洲)북방의 해협, 그리고 데이비스해협(그리인란드와 캐나다의 사이에 있는 북해)이 위험하다.

너희들은 그것이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神)이… 자연이 벌을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게될 때까지 파괴는 이어질 것이다」

그후 제 3차 세계대전과 극(極) 점프

전율할 예언이었다. 그 모든 것이 적중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의 독일이나 뭇솔리니의 이탈리아도 그리고 일본의 운명도 모두 예언과 같이 되었다. 유럽은 폐허가 되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재직중에 죽은 두번째의 대통령」(첫번째는 링컨)이 되었다.

더우기 그후의 일도 적중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도 각지에서 동란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中東으로 좁혀진 감이 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어느쪽에 붙느냐에 따라 대동란의 열쇠를 쥐는 이집트, 미국에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는 리비아 또 이스라엘과 싸워 레바논을 서로 빼앗고, 가장 위험한 불씨가 될 듯한 소련의 친위국 시리아에 촛점이 쏠리고 있다.

그 결과를 케이시는 명확히 잘라지는 않았으나 먼저의 리이딩을 잘 읽어 보면 제 3차 세계대전적인 대동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주무대로 북극권의 데이비스해협(개전과 동시에 미·소의 핵미사일이 대각선으로 서로 날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휩쓸며 일어난다.

그만만해도 공포의 동란이 다할 수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북방의 해협」에서도 그것이 일어난다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 지역의 어느 해협도 석유를 싣고 왕래하는 생명선이다. 만약 거기에서도 「신의 재판」과 같은 대동란과 파괴가 일어난다면…

그러나 가트루드는 그 이상 파고들어 질문하지는 않았다. 잠자는 케이시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트루드는 질문을 서둘러 그 앞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다.

그 대동란후 세계는 결국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 잠자는 예언자는 신음하면서 대답했다.



케이시는 히틀러의 대두로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의 추이, 그후의 세계정세까지 모든것을 알고 있었다.

케이시 「... 그후, 남태평양에 파괴가 일어난다. 지중해와 애트너(주: 이탈리아의 활화산)에서도 파괴가 일어난다.

뉴욕을 경계하라. 배내비어스화산과 페레(서인도제도의 활화산)도. 캘리포니아, 솔트레이크, 베바다 남부도. 이들 지역은 침몰할 염려가 있다.

미국동부에서는 새로운 육지가 나타난다. 서부에는 지각(地殼)파괴의 큰 일부가 나타난다. 유럽의 북부가 순식간에 변한다. 캘로라이나, 조지아도 사라진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다 속으로 가라 앉는다. 북극과 남극에는 화산폭발을 일으킬만한 대변동이 일어난다」

가트루드 「북극과 남극에서 화산이 폭발하는지요」

케이시 「그렇지 않다. 극지(極地)에서 일어나는 대변동이 다른 지역에서 화산을 폭발시킨다는 것이다」

가트루드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극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케이시 「그렇다. 포울·시프트다. 그때 포울·시프트가 일어난다. 그렇게 격심하지는 않으나, 약간 완만하게 그러면서도 약간 강하게 일어난다. 지금의 아열대(亞熱帶) 지역이 열대로 변한다. 그리고 지구에, 세계에, 인류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가트루드 「그것은 언제인지요? 언제 일어납니까?」

케이시 「전조가 시작되는 것은 1958년, 그리고 1998년까지의 사이에...」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해온 「2000년 5월 5일」하오는 다소 빗나간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핀트를 맞춘 극이변(極異變)의 예언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우기 그것은 2000년 보다 앞쪽으로 빗나가고 있다. 지금이 86년이니 앞으로 12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의 예지(豫知)를 적중시켜 죽은 후의 지금도 「버지니아·비치의 현자(賢者)」로 숭앙되고 있는 대예언자 케이시가 이러한 절박한 시기의 포울·시프트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조가 1958년에 시작된다는 지적도 기분이 좋지 않다. 그 해는 미·소의 대기권 밖에서의 핵실험이 정정에 달하여 그 영향인지 이때까지 없었던 이상기온이 지구를 둘러싸기 시작한 첫해의 해이다.

그때까지 비교적 좋은 기후로 지나오던 미국은 이 해 부터 연속적인 대한말이 닥치기 시작했다. 인도에는 만성적인 기아가 계속되었으며, 남북아메리카와 태평양지역에 지진과 홍수가 늘어났다.

그 결과인지 63년에는 북반구(北半球)에서 기암배치가 역전, 현재로 이어지는 「소빙기(小氷期)」라고 부르는 격심한 기후변동 — 이상기온과 이상저온의 반복 — 이 각지에 흡습해 왔던 것이다.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 제 3차 세계대전과 겹쳐 끝내는 포울·시프트...

이 구할 길이 없는 케이시의 예언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아무리 영감(靈感)이 발달한 초능력자 케이시라 할지라도 “절대”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그도 이점만은 잘못 보았다. 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난다고 잘못 생각한 것이라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케이시 이외의 많은 예언자들도 대체로 금세기말에서 래세기초에 무엇인가 엄청난 대이변이나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이다.

더우기 케이시는 그후 하나의 기괴한 꿈을 꾸고꾸고 있었다.

케이스가 죽음 직전에 본 기분 나쁜 악몽(惡夢)

케이스는 1945년에 사망했으나 그 직전에 본 꿈이다. 그 내용을 그의 아들인 퓨우에 이야기하여 퓨우로부터 제스·수턴이 듣고 기록했다. 스티븐은 「뉴스위크」의 전 편집차장으로 “The Door to the Future”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 속에 케이스의 이 꿈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그것은 이러한 꿈이었다.

서기 2100년. 새로 태어난 케이스가 높은 하늘을 나르고 있다. 아마도 미국인으로 태어 났는지 각색의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열린 연 같은 모양의 비행물체」에 타고.

그러자 멀리 눈밑에 붉게 탄 사막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사막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폐허였다. 무엇인가 거대한 힘에 의해 절린 것 같은 지표(地表)의 여기저기에 무너져 없어진 빌딩의 흔적과 같은 것이 보였다.

케이스가 흥미를 느끼고 그곳에 내려가 이곳 저곳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노동자 같은 일단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보지 못한 기계를 조정하며 폐허의 정리와 재건을 하고 있었다. 케이스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여기는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 하고 물었다. 그중의 한사람이 무뚝뚝하게 요즘과는 다른 악센트의 영어로 대답했다.

「여기는 옛날 100년전 뉴욕이었지…」

케이스는 여기서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나도 선명했던 폐허의 모양을 다시 되살려본 그는 이것은 정몽(正夢)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98년까지에 일어날 포울·시프트, 또는 대전쟁을 그로 인해 세계의 어느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자신은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을 초월한 「근원자」(根源者)의 수수께끼에 다가서다

나는 이 기분나쁜 꿈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다. 뉴욕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대부분이 98년. 케이스의 예언과 같이 폐허가 되거나 바다 속으로 가라 앉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감상과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영감자로서의 그의 성실한 경험으로 보아 적어도 그의 주관으로서 이 꿈과 「98년」의 예언이 엉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환상」인지 「근원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무엇인가 인간을 초월한 것이 꿈과 무의식을 통해 그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고, 그가 그것을 충실히 전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그 「환상」과 「근원자」—인간을 초월한 그 자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에게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실은 그러한 초월자(超越者)인지 근원자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인물, 어쩌면 초월자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물이 케이스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 세상에 실재하고 있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수수께끼에 다가 설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앞으로의 운명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란?